

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(4차)

- 일 시 : 2015. 01. 19.(월) 16:00 ~ 19:00
- 장 소 : 대학본관 4층 접견실
- 참석자 : 황인수, 한남희, 고정수, 김정수, 정태성, 이정훈, 송원영(7명)
- 불참자 : 변주승, 황호권(2명)

* 회의안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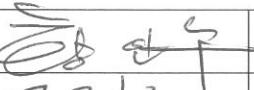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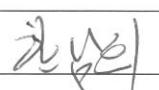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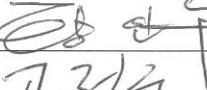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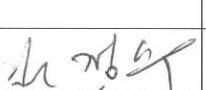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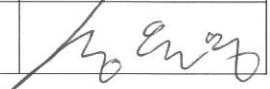
I. 2015학년도 등록금 책정을 위한 예산 설명

(16시 00분 대학본관 4층 접견실에서 회의 시작)

- 황인수 위원장 성원보고(노동선 간사 : 9명 중 7명 참석 보고)
 - 3차 회의록 보고
 - 4차 회의 안건 및 예산 조정 작업 설명
- 황인수 위원장, 노동선 간사
 - 외국인 기숙사 및 리모델링 등으로 40억 정도의 기금인출이 있음을 설명함
 - 최대한 조정했지만 부족액 18억은 운영비 추가 삭감 또는 보수 조정 작업을 통해 해결할 것임을 설명함

I. 2015학년도 등록금 책정을 위한 예산 설명

- 황인수 위원장
 - 등록금 책정을 위한 예산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.
- 정태성 위원
 - 대학평의원회 가기 전까지 수입과 지출 차이를 0원으로 맞춰야 한다고 하셨는데, 등록금 심의를 위해서는 저희도 최종적으로 맞춰진 자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
- 황인수 위원장, 노동선 간사
 - 예산안 자료는 등록금 심의를 위한 참고자료임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.

간 서 명	황인수		변주승		한남희	
	고정수		김정수		황호권	
	정태성		이정훈		송원영	

- 최종자료는 부족분 18억 가량을 인건비에서 빼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.

○ 이정훈 위원

- 작년 인건비 20억 삭감한 것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.

○ 황인수 위원장, 한남희 위원

- 부족액은 17억 가량이고 기금 인출을 위해 재무지원실에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.

- 기금의 종류와 운용되는 구조에 대해 추가 설명함

- 입학정원 147명 감소 외에 간호학과 설치에 따른 인원 감소분 30명을 합치면
총 177명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12억 가량의 등록금 수입이 감소함을 설명함

○ 정태성 위원

-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시는데, 왜 재단은 부담액을 늘리지 않고 있는지 궁금합니다.

- 2012년 차기이월금과 2013년 전기이월금이 다른 이유가 궁금합니다.

○ 황인수 위원장

- 예산안을 작성하는 시기와 결산을 하는 시기의 차이, 추경으로 인한 지출액 증가로 인해 다를 수밖에 없음을 설명함

- 1,500개에 달하는 예산 항목에 대해 5% 가량의 이월금이 남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임을 피력함

- 이월금은 누적되는 구조가 아니고, 발생 시 수입으로 편성되어 지출되는 개념임을 설명

○ 송원영 위원, 이정훈 위원

- 이월금에 대한 별도의 지출 내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.

- 기금은 용도가 정해져있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.

- 2014년 남는 기금이 170억 가량인지와 이월자금이 적립금으로는 안 들어가는지 질의함

○ 황인수 위원장

- 이월금 사용에 대해서는 우리 학교 정도의 규모에 있어서 회계감사 등을 통해 완벽하게 맞춰지고 있습니다.

- 기금에는 용도가 이미 정해져있는 것과 학교의 재량에 맞추는 것이 있습니다.

- 조정된 금액은 160억 가량이며 작년 30억과 올해 40억 정도를 빼면 90억 가량의 기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

간	황인수		변주승		한남희	
서	고정수		김정수		황호권	
명	정태성		이정훈		송원영	

- 감가상각에 의해 우리 학교가 최대 적립할 수 있는 건축기금은 36억 정도라고 지난 회의 때 말씀드렸습니다. 더불어 2014년의 경우 15억 정도를 건축기금으로 적립하였습니다.

○ 정태성 위원, 송원영 위원

- 2011년도에 한시적으로 법정전입부담금이 70%가량 올라간 적이 있는데, 무슨 이유로 이렇게 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.
- 2011년도 이후에는 다시 10% 정도로 재정지원대학평가에서 적당히 점수를 맞을 수준으로만 법인이 부담한 점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추후 법정부 담금이 오르는 것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.
- 장학제도 역시 보완 및 확충을 통해 개선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
- 예·결산에서 건설가계정이 차이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?

○ 황인수 위원장, 한남희 위원, 고정수 위원

- 재정지원대학평가에 처음으로 5점 정도의 법인 지표가 생겼기 때문에 재단에서 무리해서라도 노력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
- 비록 수익성은 떨어지나 법인이 운용했던 사업 역시 학교를 위한 것이었음을 설명하며 법정부담금은 전체 예산규모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규모가 줄어들면 부담금 비율은 올라갈 수 있음을 추가 설명함
- 총학생회에서 장학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.
- 2015년 건설가계정은 20억 가량이 유학생기숙사 용도로 잡혀있습니다.

○ 이정훈 위원

- 교원 수가 감소함으로서 인건비를 줄일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.

○ 황인수 위원장

- 교원확보율을 고려하였을 때 8년 내에 60명가량 감소할 예정이며, 이러한 것을 고려하여 구조적 대책을 세우고 있음을 설명
- 내년 또는 후년부터 학사 단위 역시 바꿔야 함을 학생회에 추가 설명함
- 이제는 운영비 조정이 아닌 구조적 조정을 통해 해결해야 함을 피력함

○ 정태성 위원

- 12~14년 이월자금 적립 및 사용내역을 알고 싶습니다.
- 등록금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.

○ 황인수 위원장, 노동선 간사

간 서 명	황인수		변주승		한남희	
	고정수		김정수		황호권	
	정태성		이정훈		송원영	

- 추경 리스트를 통해 궁금하신 점이 해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.
- 등록금은 동결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며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.
- 예산대비 결산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상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.

○ 이정훈 위원

- 타 대학의 등록금심의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원광대학교는 이제 1차 시작, 우석대학교는 위촉만 받아놓은 상황, 전북대학교도 1차 회의만 진행한 상태라고 합니다. 반면, 우리 학교는 서둘러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.

○ 한남희 위원, 노동선 간사, 황인수 위원장

- 대학평의원회의 일정에 맞춰 작업하고 있는 것이며, 현재도 많이 늦어져있는 상황임을 설명함
- 국가장학금2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등록금 동결 또는 장학금 인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과 함께 2014년도 이월자금의 운용에 대해서 추가 설명함
- 등록금을 인상시켜 국가장학금을 포기할 수는 없는 현실이기에 대학 본부에서는 정책적으로 올해 등록금은 동결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임을 추가 설명함

○ 정태성 위원

- 자체적으로 회의록도 만들고 SNS를 통해 학생들과 의견을 교류하고 있는 학생회의 상황을 설명하며, 보완된 자료를 더 검토하여 논의할 것임
- 대학평의원회의 일정에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맞춰야 하는 이유를 질의함

○ 황인수 위원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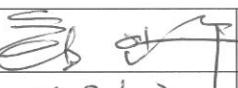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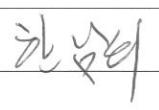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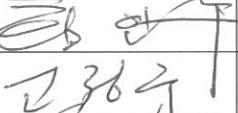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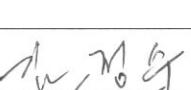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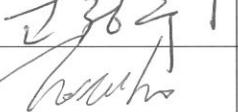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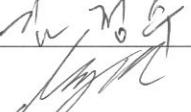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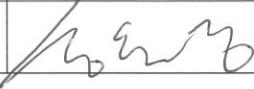
- 대학평의원회 자문을 마친 후 다시 예산 심사 작업을 해야 하고, 이어서 이사회를 한 후 교육부에 보고해야하기 때문임을 설명함
- 교육부 보고 기한을 맞추지 못할 경우 행정적 불이익이 있다는 것과 교육부 보고 전 이사회 개최 기한이 존재한다는 것 등 여러 절차를 추가 설명함

○ 송원영 위원

- 결산기준 12~14년도 차기이월금과 전기이월금의 사용내역을 다음 회의 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노동선 간사

- 이월자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추경 자료에 적혀있기 때문에 추경자료를 드릴 예정임을 설명함

간 서 명	황인수		변주승		한남희	
	고정수		김정수		황호권	
	정태성		이정훈		송원영	

- 더불어 이월자금, 법인전입금에 대해 예산 심사시 별도 안건 상정 예정임을 설명함
- 명시이월, 사고이월이 아닌 순수한 이월자금인 기타이월이 등록금의 2%를 넘지 않도록 하는 법이 통과되었음을 설명함

○ 이정훈 위원

- 경상운영 지출액 감소보다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수입이 감소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등록금이 인상될 시기가 향후 분명히 올 것이며 최근 우리학교의 등록금 인하 기조에 맞춰 올해까지 등록금을 인하하는 것이 학생 사기 진작 및 학교 이미지 관리 측면에서도 긍정적일 것으로 생각합니다.

○ 황인수 위원장, 고정수 위원, 노동선 간사

- 현 정부의 정책 하에 대학은 향후에도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, 우리 대학을 포함한 타 대학 역시 약간의 등록금 인하도 할 수 없는 상황임을 설명함
- 참고로 대학평의원회 및 이사회에 상정한 예산 자료는 더 이상 고칠 수 없음을 설명함

○ 정태성 위원, 이정훈 위원

- 재단에 대해 법인전입금 확대를 요구할 방안이 있는지 질의함

○ 황인수 위원장, 고정수 위원, 한남희 위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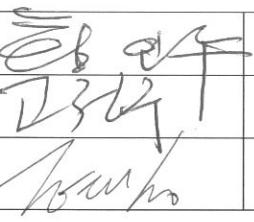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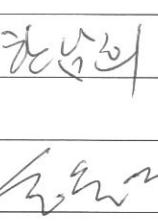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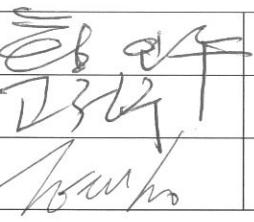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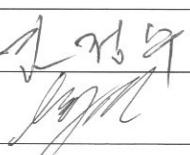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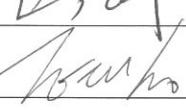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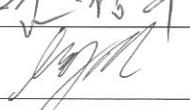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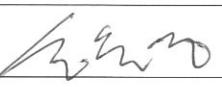
-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논하는 것은 어려움을 설명함
- 학교의 규모를 감당하기 어려운 현재 법인의 상황을 설명하며, 총학생회에서 법인 전입금의 확대를 요구했다는 점을 법인에 전달할 것임을 언급함

○ 황인수 위원장

- 특별한 논의사항이 없으면 이상으로 등록금심의위원회 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.

○ 진행내용

- 2015년도 등록금 책정을 위한 예산(안) 설명
- 법인전입금 확대 방안 논의
- 장학제도 보완 및 확충 방안 논의
- 대학 구조적인 측면의 조정 여부 논의
- 이월자금 사용 내역에 대해 질의응답
- 등록금 인하 가능성 재요구

간 서 명	황인수		변주승		한남희	
	고정수		김정수		황호권	
	정태성		이정훈		송원영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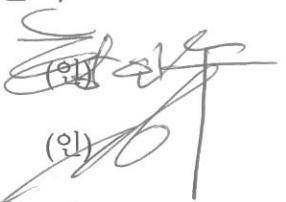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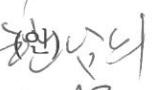
○ 결정사항

- 대학평의원회에 자문 요청한 추경 자료 제공
- 5차 회의 시간 및 장소 결정 : 2015.01.21.(수) 17:00 본관 4층 접견실. 끝.

2015. 01. 19.

위 사실을 확인함

전주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

위원장	황 인 수	
부위원장	김 정 수	(인)
위원	변 주 승	(인)
위원	한 남희	
위원	고 정 수	
위원	황 호 권	(인)
위원	정 태 성	
위원	이 정 훈	
위원	송 원 영	(인) 